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민감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ommunity Members' Cultural Sensitivity about Immigrant Wives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민경**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

Professor : Kim, Min-Kyeong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cultural sensitivity of community members to migrant wives in Korea. A total of 12 community members: 4 neighbors, 4 practitioners, and 4 public officials from both urban and rural area were interviewed about their prior experiences with migrant wives. The participants provided their personal feelings and thoughts on a variety of issues involving migrant wives, such as cultural integration, cultural knowledge, opportunity equality, cultural originality, language usage, openness, and the movement toward a more multicultural society. Interview results indicated that the participants had perceived others' prejudice toward migrant wives in Korean society;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ey wanted to participate in cultural festivals and gain knowledge of other cultures.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endorsed a uni-directional perspective on cultural adaption, and they thought of migrant wives as community members. The participants' attitudes toward a multicultural society we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and they suggested that Korean society is moving toward a broader perspective.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주요어(Key Words) : 결혼이민여성(immigrant wives), 문화적 민감성(cultural sensitivity), 문화적 통합(cultural integration), 개방성(openness), 차별(discrimination),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

I. 서론

세계화의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노동이주자, 국제결혼이주자 등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자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출신지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주자의 정확한 수치에는 다소간 이견이 있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2009년에는 2008년 891,341명보다 24.2%가 증가한 1,106,884명으로 나

타났다(행정안전부, 2009).

이러한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단지 인구 구성이 인종·민족적으로 다양하게 바뀐다는 것 이상의 다차원적인 변화를 수반한다. 일차적으로 노동력 수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으며, 소수자의 인권 혹은 소수민족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도 향후 크게 부각될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가장 심층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과 수용의 정도에 따라 다른 인종·민족과의 공존이나 갈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전반기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긴 하나 필리핀 및 일본 또한 결혼이민여성의 주요 출신국이며, 이밖에도 태국이나

* 이 논문은 2008년 태평양학술문화재단의 학술연구비 및 출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교신저자 : 김민경 (E-mail : mkm35@nsu.ac.kr)

몽골,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최근에는 캄보디아에 이르기까지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은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결국 국제결혼의 지속적인 증가가 시사하는 다인종·다민족 사회로의 변화 추세 속에서 지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뚜렷이 부각되는 결혼이민여성야말로 이른바 다문화사회를 선도하는 존재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몇 년전 여성가족부 주관 하에 12개 중앙부처 및 위원회의 세부역할을 담은 '결혼이민여성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지원방안'(대통령자문 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이 발표되었지만 여성가족부의 사업은 다분히 소외가족으로서의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측면에 역점이 두어지는 경향이 있다. 국민들의 다문화민감성과 이주민의 수용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도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다인종·다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는 등 국민들의 다문화적 감수성 및 수용성 증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실 결혼이민여성과 관련한 이제까지의 여러 연구들은 결혼이민여성이나 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지원에 주로 관심을 들 뿐, 사회통합의 또 다른 축인 한국사회 또는 한국인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수용 또는 배제의 양상을 밝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통합의 가능성을 높여가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가족관계 속에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수용성을 파악한 연구들(김이선 등, 2006; 양애경 등, 2007)과 문화적 역량을 언급한 연구(김연희, 2007)를 시작으로 최근 농촌 미혼남성의 국제결혼 관련태도를 분석한 연구(정현숙·양순미, 2009)와 이민자와 이민자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최효진·유계숙, 2009)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유네스코는 2005년 제 33차 총회에서 문화의 다양성은 인류의 중요한 특성임을 확인하면서 그 지도 원칙의 하나로 소수자와 토착민의 문화를 포함한 모든 문화에 대한 동등한 존엄성의 인정과 존중을 강조하였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5). 한국사회의 인구구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문화의 다양성의 존중과 이주민들의 기본 인권의 존중에 관한 규범에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문화적 민감성은 다양한 현대사회 가치의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태도, 지식과 능력이다. 현재 세계는 글로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다양성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사람들과 정신건강과 교육복지에서 문화적 민감성과 문화적 역량이 중요한 키워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Luquis & Pérez, 2006; Sue, 2006). 또한 다양한 학문분야 가족학, 아동학, 의료, 간호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의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고, 서비스 조직의 인가에도 문화적 능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키고 있고 직원의 보수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99;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0; Boyle & Springer, 2001; NASW, 2001).

다문화사회로 이행해가는 현실속에 핵심적이고 우선적인 정책대상으로 결혼이민여성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이 새로운 정주민으로 광범위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범위를 벗어난 또 다른 사회적·인적 관계망을 통해 이들 결혼이민여성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수용되는지 파악하는 일은 결혼이민여성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에 한걸음 다가가는 일이며, 지역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민감성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관건일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결혼이민여성에 대하여 이웃 주민으로서 또는 결혼이민여성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관계자 및 서비스 제공자로서 상호 접촉의 경험을 소지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수용, 문화적 지식,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차이 등의 인식 정도, 개방성,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등에 기초한 문화적 민감성을 파악함으로써, 결혼이민여성을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수용함에 있어 요구되는 현실적인 정책대안 및 과제 등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공생적 동반자로서 결혼이민여성을 둘러싼 지역사회 내 행위자들의 실제적 인식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문화적 민감성을 비롯해 결혼이민여성 대상의 각종 정책 및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는 담당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문화민감성 향상과 다문화 의식 및 수용성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사회

인구의 이동은 사람 그 자체만의 이동이 아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도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주자들의 문화와 이들을 수용하는 국가의 문화와의 만남은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문화의 만남은 단순히 만남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동을 일으키는 하나의 세력이 되며 또한 정체성 문제를 야기한다(Castles & Miller, 2003).

문화적 다양성이 전제된 다문화 사회는 특정문화가 지배문화가 되어 다른 문화들을 열등화하여 그것들의 가치를 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문화들 자체를 하나의 문화로 인정하여 서로 다른 문화들이 상호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다(양애경 등, 2007). 다시 말하면 다문화 사회란 서로 이질적인 문화가 서로 융합하여 모자이크화된 문화를 구성하여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한다(Roberts & Clifton, 1982).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

하여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주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접촉의 기회확대를 통해 이들의 문화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접촉도 단순한 대면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질적으로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는 상호 접촉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우리'와 타자 또는 이방인으로서의 '그들' 사이에 그어진 경계선을 허물 수 있는 것이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의 국적도 점차 다양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결혼한 이주여성들의 국적이 다양화된다는 것은 우리 문화가 접촉하게 되는 문화 역시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 문화만이 아니라 이들 새로운 문화들 간의 접촉의 기회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 이주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서 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 또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즉 자기만족 중심주의나 자기집단 중심주의는 전지구화 시대에 적합한 사고가 아니며, 점차 다양한 민족·인종의 유입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나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전지구화 시대에는 개방적 사고로 우리와 다른 인종·민족에 대해 편견과 차별의 제거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과제라 할 수 있다.

2. 문화적 민감성

1) 개념

문화간 접촉 장면에서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전통적으로 접촉 당사자들이 상대방 문화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태도와 행동의 차원에서 연구되었다(Berry, 1997).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일부 연구자들(Cushner, 1986; Loo, 1999)은 이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이문화 수용 의도를 중심으로 개인의 문화적 민감성(cultural sensitivity)을 측정하였다.

문화적 능력,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수용성 등의 용어들은 매우 비슷한 개념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다문화 관련 연구 영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문화적 능력은 상이한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몇 개의 문화가 공존하는 현장에서 이주민과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것이다. 이는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언어, 문화,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이며, 이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으로써 무능과 유능의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문화적 민감성이란 문화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서로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활동적, 문화적 요인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능력과 민감성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짓기는 어려우나 문화적 능력이 필요한 요인으로서 문화적 민감성을 포

함시키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민감성과 문화적 능력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문화적 민감성의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McPhatter(1997)는 '문화적 능력 획득이론'(Cultural Competence Attainment Model)에서 문화적 능력을 계몽된 의식, 근거에 기반한 지식기반과 축적된 기술적 능력의 세 요소로 지적하였다. Manoleas(1994)는 문화적 능력모델에서 문화적 역량은 지식 기반, 기술 기반, 가치 기반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Campinha-Bacote(2002)는 건강관리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문화적 역량의 과정 모델을 제시하면서 화산모양의 상징적 모델로 발전시켰다. 여기서 문화적 역량은 문화적 욕구, 문화적 만남, 문화적 지식, 문화적 기술, 문화적 자각으로 구성된다. 즉 문화적 역량은 하나의 과정으로 계속 발전가능하게 열려 있으며 역동적인 변화를 보인다고 하였다. 문화적으로 역량 있게 되는 것은 이러한 문화적 자각, 지식, 기술과 태도가 함께 작용하여 일어나는 과정이며 그 출발점은 문화적 욕구가 될 수 있다(윤갑정·이병준, 2008)고 하였다.

문화적 민감성이 갖는 공통적인 요소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자기 인식과 타 집단의 문화의 다양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 다양한 문화에 관한 지식, 문화적으로 적절한 개입 기술 등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Boyle & Springer, 2001; California Endowment, 2003; Lum, 2005; NASW, 2001; Sue & Sue, 2003).

이상의 연구들을 토대로 볼 때 문화적 민감성을 갖추기 위한 단계는 크게 3단계를 거친다. 첫째, 인식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개인적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등을 인정하고, 문화적 규범, 태도, 신념을 알아가며, 다양성을 가치있게 여기고, 클라이언트 집단에게 심리적, 물리적으로 다가가고자 노력하며 상이한 환경 가운데 편안함의 수준을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자신의 문화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야 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수업, 워크샵, 세미나에 참석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문헌을 읽는 것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다른 문화권의 영화, 다큐멘터리 보기, 문화적 사건들과 축제에 참석하기, 타인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국가를 방문하는 것 등이다. 셋째, 문화적 기술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전문적, 직업적 관계를 형성하며, 다른 언어를 배운다. 또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단서들을 배우고, 타문화적 환경에서 더 편안해하며, 문화적 집단의 신념과 태도가 자신과 타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문화 간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문화적 민감성이 효과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개인, 전문직, 서비스 조직, 제도 전체의 네 수준에서 모두 실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Cross et al., 1989; Lum, 2007; Sue, 1998). Cross 등(1989)은 개인 실천가가 이중문화적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되어야 할 문

화적 역량을 5개의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 자기인식, 문화적 차이가 빚어내는 대인관계의 역동에 대한 이해, 타문화에 대한 지식, 타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문화적 민감성을 문화적 통합정도, 문화적 지식, 기회균등에 대한 태도, 문화적 독특성, 언어사용에 대한 인식,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개방성, 다문화사회변화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문화적 민감성 관련연구

한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문화 수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 간 접촉 경험의 성질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문화 간 상호작용 및 문화적응을 다룬 서구의 선행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Liebkind, 2000; Nesdale & Todd, 2000). 집단 간 접촉에서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상대방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전반적 태도와 행동 경향성은 상대방 집단에 대한 전반적 인식수준과 인식의 내용에 의해서 영향받으며, 이는 집단 간 갈등, 인종편견 및 성 고정관념 등에 대한 연구에서 오랫동안 강조되어왔다(Brewer, 2003; Crocker & Major, 1998; Kunda, 1999).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에 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응답은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개방성에 관한 부가적 자료로서의 의미도 지닌다(양애경 등, 2007). 문화간 접촉에서 접촉당사자들은 사고와 행동, 생활습관에서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종류의 갈등을 경험하며, 실제로 문화 간 접촉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전반적 수준 및 성질은 문화 수용성의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로 간주된다(Gudykunst, 1998; Liebkind, 2000; Ting-Toomey, 1994). 문화간 접촉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접촉 당사자들이 서로의 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귀인(attribution)하는데서 비롯되며, 이러한 오해는 주로 언어 장벽 및 행동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상이한 시각에 기인하는 경우가 흔하다(Ting-Toomey 1994). 문화 간 접촉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이문화 구성원들에 대한 양립불가능성을 지각하는 것이다.

최근 20년간 미국에서는 소수민족의 복지와 문화적 민감성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과 담론이 증가하였는데(Manoleas, 1994), 한국 사회가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구 분야도 문화적 민감성을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이 있어야 할 때다. 그러나 한국의 실천분야와 연구자들이 다문화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지금까지 보여준 반응은 '단일 문화적 관점'(monocultural perspective)에서 새로운 대상의 특성과 실태를 이해하려는 제한적 접근만이 이루어졌다고 본다(권복순 · 차보현, 2006; 김두섭, 2006; 조영아 등, 2006; 최금혜, 2005). 특히 다문

화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새로운 이주자들을 한국문화에 동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차원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언어능력, 문화적 차이에 대한 태도 등을 지닌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문화적 역량을 갖춘 실천가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김이선, 2007).

불과 얼마전부터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박수미 · 정기선, 2006),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분석(김상학, 2004), 국제결혼 이주자나 그 자녀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분석하는 연구(설동훈, 2006) 등에서 수용과 유사한 관심들이 나타나 이를 토대로 가족관계에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수용성을 파악한 연구(김이선 등, 2006)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수용성을 파악한 연구(양애경 등, 2007)가 진행되었다. 이정우(2007)는 외국인 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세대에 걸쳐 폭넓게 만연되어 있고, 후속세대로 전이되며, 학교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습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다문화시대 교육현장에서 유아교사의 문화적 역량을 개발하는 방향을 탐색하는 연구(윤갑정 · 김미정, 2008) 등도 이루어졌다. 우리 사회 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이 문화적 이해도(양육방식, 생활양식, 의사소통방식), 체험 · 경험적 학습(외국인 자원봉사경험, 외국인 친밀도)이 공감(관점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점, 개인적 고통)을 통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민성혜 · 이민영, 2009). 또한 국제결혼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양성은, 2008)에서 국제결혼을 철저히 수용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아 이주여성의 행복추구권이나 존엄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모국의 사회, 경제,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나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재하다고 하였으며 배우자감에 대한 선호는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과 백인우월에 동조를 드러내며 인종차별적 경향을 위협스럽게 보여주어 국제결혼을 국제화와 세계화를 이끄는 긍정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최근 국제결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농촌 미혼남성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관련 태도분석에서도 응답자 중 73.68%가 국제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 이유로 국제결혼 자체에 대한 거부, 주변 국제결혼부부의 문제점 관찰, 문화적 차이 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었다(정현숙 · 양순미, 2009). 이민자와 이민자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서 이민자지원정책 지지도, 복지정책지지도, 교육문화정책지지도, 노동정책지지도, 노동정책지지도, 차별철폐정책에 대한 지지도. 이민자에 대한 권리 · 의무보장 지지도 등에 다문화지향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최효진 · 유계숙, 2009).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연출되는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심리적 변화(Clark & Legge, 1997; Hainmueller & Hiscox, 2007; Ruefle et al., 1992)와 국적과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Heath

& Tilley, 2005; Medrano, 2005; Medrano & Koenig, 2005), 외국인 혐오증 (Lewin-Epstein & Levanon, 2005)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접근한 연구들도 있다. 인종이나 민족 집단 간의 편견과 갈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감'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감이라는 개념은 한 집단의 성원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또는 주관적 거리감)를 일컫는 것으로, Borgardus(1928, 1933)는 이를 해당 집단과 어느 선까지의 접촉을 허용할 것인가, 즉 '수용 가능한 사회적 접촉의 범위'를 통해 측정하였다. 사회적 거리감은 다른 문화에 대한 경험의 정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세계화로 인해 한국인들의 다른 문화와의 접촉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기초로 10년 전과 비교해 한국인들의 사회적 거리감 수치는 감소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김연희(2007)는 한국인들의 관용성을 경험과 토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정착된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아직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 문제에 대한 '일반적 선의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관용성과 시민의식으로 정착될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살펴볼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선정

본 연구대상은 결혼이민여성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이웃주민과 결혼이민여성 관련 서비스제공자, 정책담당관계자 집단으로 나누어 심층적인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

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 결혼의 비율이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고려해서 C시, K시, G시, K군, H군으로 나눠 설정한다. 총 조사대상자는 이웃주민 4명과 결혼이민여성 대상의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는 담당자들 4명, 정책 담당자들 4명 등 총 12명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기준은 이웃주민인 경우 결혼이민여성과의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들을 일상생활에서 접촉하거나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며, 정책 및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는 담당자들인 경우는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정책을 담당하거나 이들을 위해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들로 한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여성 6명, 남성 6명이었으며, 이들 학력은 고졸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대졸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령은 2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골고루 분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표집방법

본 연구에서 참여자 선정은 비확률표집방법으로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하는 유의적 표집 방법(purposeful sampling)과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표집은 우선 결혼이민여성들과 교류가 활발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들 지원시설에는 직접방문을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이들 시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을 인터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요청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을 모두 표집할 수가 없어서 이미 면접을 한 피면접자들을 통해 다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역주민을 소개받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 례	성 별	연 령	학 령	직 업	경 령	결혼유무	선정조건
1	남	31	대 졸	사회복지사	7	미 혼	이웃주민
2	남	26	고 졸	군 인	7	미 혼	이웃주민
3	여	37	고 졸	부동산 컨설팅	5	기 혼	이웃주민
4	여	29	대 졸	회사원	3	미 혼	이웃주민
5	남	43	대 졸	시민 활동가	5	기 혼	실무자
6	남	40	대학원 졸	지원 센터장	10	미 혼	실무자
7	여	27	대 졸	건강 가정사	3	미 혼	실무자
8	여	53	대학원 졸	한국어 강사	5	기 혼	실무자
9	남	52	대 졸	공무원	24	기 혼	정책 담당자
10	남	28	대 졸	공무원	1	미 혼	정책 담당자
11	여	32	대학원 졸	공무원	5	기 혼	정책 담당자
12	여	27	대 졸	공무원	2	미 혼	정책 담당자

* 도시지역 출신 사례: 1, 3, 6, 7, 9, 11

3. 조사방법

2009년 2월 모두 3명의 지역주민과 2명의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사전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사전 조사를 위해 2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본 연구자가 직접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개별대상자와 심층 면접을 하였다.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수집하고, 그 이후에 조사대상자 및 조사내용을 검토하였다. 본조사는 이웃주민에 대한 조사와 서비스제공자와 정책담당자에 대한 조사를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2009년 3월과 4월에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면접은 조사대상자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곳으로 희망에 따라 센터상담실, 이들의 직장 또는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조사하기 전에 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면접내용은 익명으로 사용됨을 밝혔다. 사례당 면접 시간은 보통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면접내용은 모두 녹음하여 녹음된 면접내용은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을 접촉하고 있는 이웃주민, 정책담당자와 서비스제공자의 문화적 민감성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조명하는 한편 사례간 비교를 통해 문화적 민감성과 수용의 전반적인 양상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방식은 한국에서 사회문제를 조사한 선행연구들(양애경 등, 2007; 한성열 등, 2007)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일반적 사항으로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소득 등을 조사하였으며 문화적 민감성에 문화적 통합, 문화적 지식, 기회균등, 문화적 독특성, 언어사용, 개방성정도,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았다. 면접문항은 국내외 관련문헌을 고찰하고 연구자가 자문진과의 논의를 거쳐 예비질문지를 구성하고 사전조사를 통해 적절성을 점검하여 반구조화된 형태로 구성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은 <표 2>와 같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먼저 면접분석방법과정에서의 기본적인 방법인 질문하기와 비교하기를 활용하였다. 분석시 연구자의 민감성을 증진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자료를 보는 방식과 개념적인 질문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자료를 구체적으로 대조, 비교하여 차이를 추출해내도록 노력하였다.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이 연구자의 다음 사례의 관찰과 면접과정을 더욱 집중케하기 때문이다. 자료분석은 먼저 녹취된 모든 면접을 기술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건, 행동, 감정,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분해하고 조직화하는 주제분석을 하였다. 필수된 자료를 여러 차례 탐독하면서 자료에서 찾아지는 일정한 패턴과 주제를 찾았고 유사한 개념의 주제끼리 묶었으며 그러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연구자는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였다(Huberman & Miles, 1994; Hatch, 2002). 또한 전사자료를 반복해서 읽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상호비교,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질적연구자 2인으로부터 최종적인 개념들과 범주들을 설정하는 자료의 타당화과정을 거쳤다.

5. 연구의 윤리성

참여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참여자와 본격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및 연구기간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면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연구참여동의서를 연구자와 참여자가 각각 1부씩 작성하여 보관하였다. 본 연구의 엄격성은 질적 연구에서 주로 중요시 여기는 중립성, 일관성, 사실적 가치, 적용성에 따른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2> 심층면접의 문항범주 및 세부내용결과예시

면접문항범주	세부내용 결과	
문화적 통합	국제결혼수용, 결혼이민여성과 함께 있다면 마음상태, 결혼이민여성의 증가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문화적 지식	다른 문화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참여경험과 욕구, 다른 나라의 문화와 민족에 대한 지식필요성, 다른 나라의 문화존중과 그 방법	
문화적 민감성	기회균등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정책의 영향, 결혼이민여성의 권리,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차별
문화적 독특성	인종/민족적 배경, 결혼이민여성의 전통 춤과 놀이에 대한 흥미	
언어사용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유창성 필요여부, 결혼이민여성에게 한국의 언어, 관습, 가치관요에 대한 생각	
개방성 정도	지역사회성원으로서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태도, 결혼이민여성의 한국문화에 대한 수용태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견해,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의식 및 태도의 변화방향	

IV. 연구결과

1. 문화적 민감성

1) 문화적 통합

문화적 통합은 문화 간 접촉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으로 문화적 수용성이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어 설정되었다(Gudykunst, 1998; Liebkind, 2000; Ting-Toomey, 1994).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 통합정도는 국제결혼수용, 결혼이민 여성과 함께 있다면 마음상태, 결혼이민자의 증가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제결혼수용

국제결혼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을 허락함, 국제결혼은 허락하지 않음, 마지막으로 국제결혼을 허락하되 기간, 사랑 등 전제조건이 성립될 때 허락하겠다는 조건형으로 나타났다. 두 사례를 제외하고 허락하지 않음과 전제조건이 충족된 후 허락한다는 사례가 대다수로 나타났으며 국제결혼에 대해 특히 지역사회주민의 경우 폐쇄적인 경향이 강하게 드러났다.

국제결혼을 허락하는 경우 결혼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고 이를 존중해줘야 하며 결혼이민여성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하였다. 국제결혼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어렵고 인종에 대한 차별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오히려 이들을 지켜보는 경험으로 가족들의 인내와 배려심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국제결혼의 성격에 따라 허락여부가 달라진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단기간이 아니어야 하며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을 접한 경험유무와 차이없이 서비스 제공자와 이웃주민은 국제결혼에 대해 다소 허용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락할거예요. 저는 결혼의 의사는 결혼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며 그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결혼의 대상자가 결혼이민여성의 자녀라는 그 이유만으로 결혼을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5-서비스제공자)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당장 내 자녀가 국제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면... 국제결혼을 한 이민자들을 보면서 가족들의 인내와 배려심이 없다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 같아요. (7-서비스제공자)

어떤 국제결혼이냐에 따라서 허락이 달라질 것 같아요. 단기간에 만나서 마음에 드는 외국인을 데리고 오는 결혼이라면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혼할 대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성 즉, 욕구충족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적인 문제, 그 사람의 성격, 생활태도 등에 대해 사전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가정 내에서의 문제도 빈번할 것이고 또한 사회 병폐적인 문제 역시 커질 것이라고 생각되요. (1-이웃주민)

(2)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마음

결혼이민여성과 함께 있을 때 대부분 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불편하다는 대답도 있었으며 특히 우리사회의 단면으로 결혼이민여성에 대해 동정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불편한 이유로 어떤 목적(수업, 프로그램)이 있으면 괜찮으나 공유하는 부분이 없다면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어 불편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편한 경우에는 결혼이민여성과 대화하고 싶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친구가 되고 싶기 때문에 또한 오히려 먼저 말을 걸고 그들의 모국어 인사말을 하기도 하는 적극적인 사례도 있었다. 동정심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불편하다기 보다는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 안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사례들이 있어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편견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웃주민과 정책담당자가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어떤 목적이 있어 만나면(수업, 프로그램 등) 편해요. 그러나 단 둘이 있다면 의사소통이 걸림들이 되고 공유하는 부분이 없다면 상당히 불편하리라 생각합니다. (8-서비스제공자)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과 먼저 이야기를 걸 수 있고 그들도 나에 대해서 아주 편안하게 생각해요. 그들의 말 중 인사말 정도를 기억해 두었다가 친근감 있게 말하기도 합니다. (6-서비스제공자)

그냥 도와주고 싶고,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3-이웃주민)

우리나라 여성과 비교하여 특별히 불편하지는 않지만 내가 무언가를 도와주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1-정책담당자)

(3) 결혼이민여성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결혼이민여성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우리사회에 두려운 존재라고 응답한 사례와 이익이 되는 존재라고 응답한 사례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정책적 준비여부에 따라 존재의 특성이 달라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두려운 존재라는 이유로 그들로 인

한 우리나라의 민족 정체성의 손상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며 일반인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들을 두렵고 낮은 존재로만 느낄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익이 되는 존재일 때는 사회통합의 문제, 자녀들의 사회화, 우리사회의 인식 등의 현안문제를 잘 해결할 때 이익이 되는 존재라고 하였으며 국가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이웃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준다면 우리 미래발전의 토대가 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결혼이민여성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다문화가족정책의 성패에 따라 존재의 특성이 결정된다고 하여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웬지 모르게 우리 민족성이 깨어진다는 느낌! 물론 이것은 과히 좋은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선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들이 오면서 그들의 문화를 조금은 받아 들여 우리 문화에 정체성이 조금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딱히 단시간내에 무엇이 우리를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들의 다수가 우리나라로 유입이 된다면 아마도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좀 명확성을 잃어갈 것 같아요. (3-이웃주민)

더 이상 단일민족국가가 아니며 여러 문화가 혼합된 다문화국가 여러 민족이 함께하는 다민족국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사회통합의 문제, 자녀들의 사회화, 우리사회의 인식 등의 현안문제를 잘 해결해 간다면 이익이 될 것이예요(예로 미국). (6-서비스제공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인 준비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두려운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및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개발한다면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7-서비스제공자)

(4)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여성지원에 대한 불평, 불만이나 차별의식, 억압, 낙인화가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어색한 말투, 다른 피부색 등도 이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하는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매매혼으로 들어왔고 저소득 국가에서 가족에게 희생하기 위해 한국에 이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실천현장에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 특성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한국남성을 기만하고 성적 문란, 자기중심적이며 일상생활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고 하였다. 이 편견에 대한 원인으로 대중매체의 조장과 한국인의 근거없는 우월의식을 들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을 갖지 않는 건전한 국민성 함양과 멸시, 차별대상이 아닌 다양성을 공감하고 인식을 확산해야 하는 것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편견은 이웃주민의 경우 외적 요인에 기인하고 서비스제공자와 정책담당자는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며 우리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흔히 결혼이민여성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편견 및 고정관념이 강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나의 세금으로 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가'라는 불평, 불만 및 차별적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사회에 결혼을 한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단 시간 내에 한국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문화 및 교육을 시킴으로써 결혼이민여성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억압하고 낙인화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1-이웃주민)

이 문제는 나라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결혼이민 여성들은 나라별 행동양식이나 생활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가족들을 위해 한국으로 시집을 오고 있다는 생각과 한국내의 어려운 가정형편과 아동 양육문제 그리고 시집살이의 문제점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일반적 사고가 있습니다. (5-서비스제공자)

우리나라보다 생활수준이 낮은 나라이며 그들 또한 우리보다 의식이나 문화수준이 낮은 거라는 근거 없는 우월의식이 대표적인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11-정책담당자)

우리랑 생각이 다르죠. 가끔 그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혼을 이용하여 남편들을 기만할 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성적으로 조금은 문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6-서비스제공자)

연령과 상황의 영향이겠지만 자기중심적이며 일상생활에 대한 책임감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8-서비스제공자)

2) 문화적 지식

문화적 지식은 다른 문화지식습득에 대한 노력, 다른 문화와 민족에 대해 알 필요성, 다른 나라 문화존중방법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다른 문화지식 습득에 대한 노력

다른 문화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한 경우, 소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어떠한 참여도 하지 않은 경우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참여를 한 경우에는 문화습득을 위해 다문화가정 사회자립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본인의 공간에 세계지도를 방에 걸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여행에 참여하는 행동을 나타내었으며 다른 문화지식습득을 위해 참여하거나 시간

을 할애해 본적이 없거나 기회가 적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인 경우 책과 인터넷, 문화소개의 강의를 듣거나 다문화가족 관련 행사에 참여하거나 참여보다는 구경은 해보았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다른 문화지식을 습득하는데는 개인차가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와 정책담당자의 경우 이웃주민보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지도를 방에 걸었으며, 그 나라들과 관련한 소개 다큐멘타리를 보았고, 그 나라를 여행하였어요. 또한 그 중 한 사람에게 선물받은 것을 내 방에 소중하게 걸어두기도 했죠. (6-서비스제공자)

책과 인터넷을 통한 짧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음. 나라별 문화 소개와 관련된 강의 청취 기회를 가지고 싶어요. (8-서비스제공자)

기관 단체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행사에 참여해서 보고 듣고 하였으나 더 많은 문화 체험 기회를 갖고 싶어요. 다양한 국가 문화 전시 및 실제 체험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개최되길 바랍니다. (9-정책담당자)

다른 문화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참여하거나 시간을 따로 할애해 본적은 없어요. 역사를 좋아해서 독서를 통해 알파하게 얻은 것이 전부예요. 직장으로 인해 따로 시간이 나진 않지만 만약 참여 할 수 있다면 하겠어요. 하지만 참여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지식의 증가를 위해서일 것 같아요. (2-이웃주민)

(2) 다른 문화와 민족에 대해 알 필요성

문화적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문화와 민족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사전에 다른 문화와 민족성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언어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하였는데 언어는 문화, 성향, 국민성, 역사 등이 함축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으로 언급하였다.

반면 소수이기는 하나 알면 좋겠지만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하였다. 같이 살아가면서 알게 될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평소 습득을 위한 노력은 거의 기울이지 않으며 현재 주로 간접적인 체험만을 하고 있다고 하여 다소 소극적인 참여의식을 보였으며 이웃주민간 상반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대상자 대다수는 다른 문화와 민족에 대한 관심과 알아야 할 권리를 표명하였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는 그 나라의 특징, 사람들의 정서와 민족성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고자 할 때 물론 그 나라의 언어를 먼저

배우게 되지만 가장 쉽게 알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적 정서, 역사, 민족성을 아는 것이 내 시각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이웃주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화와 민족에 대해 알고 만나게 되면 결혼이민자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7-서비스제공자)

결혼 이민여성의 문화적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민족에 관해 알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만 필요까지 라고 생각치는 않아요. 음 단순히 말하면 예습은 오버라고 생각해요. 같이 살아가고 부대끼면서 알게 되는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2-이웃주민)

(3) 다른 나라 문화존중방법

다른 나라의 문화 대부분 존중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으나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축제나 명절을 즐길 수 있게 하여 다른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지원기관이 명절을 소개하거나 대표음식을 마련하는 것 등의 방법을 이야기하였으며 적극적으로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까지 언급하였다.

따라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의식은 방법만 다를뿐 일관되게 존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국수적 민족의식에서 벗어나 공존의식이 존재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되요. 무조건적인 입장을 취하여 '너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은 서로에게 벽을 쌓아두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민여성의 국가명절이나 축제를 즐길 수 있게 지역 체계 및 외국인 단체 등을 알아봐서 가족단위, 다른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결혼이민여성들에게는 자신들의 문화를 즐기므로써 소외되지 않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다른 나라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이웃주민)

다른 나라 문화를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다른 나라의 명절이나 축제행사를 우리지역에서 개최하도록 지원하고 내,외국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확산해야 하는게 필요하죠. (9-정책담당자)

3) 기회균등

결혼이민여성의 기회균등은 다문화정책, 결혼이민여성의 권리, 차별 등으로 나타났다.

(1) 다문화정책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정책에 대해 결혼이민여성에게 우리

나라의 문화, 관습, 언어 등에 대한 동화를 강요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이들도 잘 모르는 현실에서 피해보다는 입장과 이들 여성의 피해보다는 의무와 권리를 강조해야 하고 한국인과 유사한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등 우리나라 정책의 방향과 당위성을 언급하였다. 여기에 결혼이민여성의 역할도 요구됨을 주장하였다. 반면 내국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다소 소극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역량강화라는 미래의 정책기조가 제안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결혼이민여성 자신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결혼이민여성의 욕구와 기대에 기반한 보다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하겠다.

일반사람들보다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 문화, 관습, 언어 등을 배우라고 강압적인 면이 숨어져 있는 정책 및 교육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나들이를 생각해 봐요.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를 결혼이민자 가족이 다른 가정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유대감 형성 및 우리나라 적응을 위한 거겠죠. 하지만 결혼이민여성들은 결혼이민자가족이라는 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야 하죠. 이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결과이지 않나 싶어요. (1-이웃주민)

그들도 인간이고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그들은 법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모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최소한의 권리를 그들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 또한 그런 권리를 내세우기 이전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켜야 할 의무 또한 다해야 하겠죠. (3-이웃주민)

일반인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지만, 다문화가정에 집중되어 있는 요즘 경우는 한국사회에서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중복적인 서비스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 보여주는 서비스가 아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해야 하며,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정책담당자)

(2) 결혼이민여성의 권리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권리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그 중에서 먼저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며 결혼이민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자조모임결성으로 목소리를 갖되 지원단체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현

실적으로 제도나 정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다. 권리에 앞서 역량강화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책임을 다하면서 권리를 주장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일부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고국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돈을 벌어 남편과 따로 분리하여 고국에 땅을 사거나 집을 사면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을 들으면 상실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하였다.

한시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결혼이민여성에게 교육과 참여의 기회제공과 같은 문화권끼리 소통하고 정보교환할 수 있는 장소제공을 드는 등 결혼이민여성의 권리보장에 한 목소리를 내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결혼이민여성이 선택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이기 때문이죠. 결혼이민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을 미시적인 체계인 가족 내에서 부부관계, 부모관계 등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이웃주민)

당연하죠. 결혼이민여성을 떠나서 인간이기에 피해를 받게 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같은 이민여성들의 단체가 생겨서 결혼이민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봐요. 덤으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이웃주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책임도 다 하면서 권리 주장할 필요가 있죠. 일부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고국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돈을 벌어 남편과 따로 분리하여 고국에 땅을 사거나 집을 사면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을 들으면 상실감을 느끼기도 해요. (8-서비스제공자)

(3) 차별

결혼이민여성들은 모두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지나친 동화정책, 학대나 보수주의적 사고,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혜택이 낮고 무시당하고 지역사회에서 낙인감을 가지고 대하고 이러한 특성은 후진국 출신국일수록 더 심하다고 하였다. 특히 외모, 언어, 사소한 일 등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그 외에 저소득국가에서 왔다는 경제적 이유, 낮은 임금, 가정에서 의사결정권의 제한과 외출제한, 언어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생활전반에서 차별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결혼이민여성을 우리와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대처하고 다문화 수용도가 낮음을 의미하는 결과라 하겠다.

차별을 받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사회문제로 대두

되는 학대받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우를 보게 되는 일이 많아요. 단순히 말하면 결혼 후 가정내의 일은 접어두고서 취업을 하게 되면 노동력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그 보수에 대해선 차별을 둔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인과는 다르게 더 과중한 일과 업무시간을 부여하고 보수는 더 낮은 경우에. (2-이웃주민)

아무래도 의도도 다르고 우리말에 서툴다 보니까 사소한 일에서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10-정책담당자)

이러한 혜택조차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복지서비스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응집해 있고 농촌지역과 같이 지방에는 부족하죠. 아직까지도 결혼이민 여성과 같이 외국인들이 농촌지역에 많이 있는 것 또한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보다는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4-이웃주민)

4) 문화적 독특성

문화적 독특성은 개인의 능력평가, 전통 춤과 노래에 대한 흥미 등으로 나타났다.

(1) 인종, 민족적 배경에 의한 평가

인종, 민족적 배경에 상관없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의 현실은 백인에게만 관대하며 개인의 주변환경에 의해 평가되고 또한 객관적 상황에서 평가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 방식으로 평가받지 않으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하였다.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에 의해 평가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사회가 결혼이민여성에 대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재고되어야 한다.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그 사람의 피부색, 민족적 배경, 그 나라의 경쟁력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 경험, 지혜를 바탕으로 평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실력, 가치보다는 그 개인의 주변환경에 의해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죠. (4-이웃주민)

모든 사람은 존엄하기에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차별적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상황에서 평가되어야 하죠. (6-서비스제공자)

(2) 전통 춤과 노래에 대한 흥미

결혼이민여성들의 전통 춤과 놀이를 보면 대다수 흥미가 가는 편이라고 하였는데 경험이 전혀 없어서 관심이 없다고 한 사례도 있었다. 흥미가 가는 경우에 결혼이민여성의 전통 춤과 놀

이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을 발견하여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며 그들의 춤과 놀이가 화려하고 다채롭고 신기하여 흥미가 간다고 하였다. 기회가 된다면 이들의 문화를 즐기고 싶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지역주민이나 실무자나 공무원 모두에게 인종간, 국가간의 이질적인 문화를 예술로서 조화시킬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라별로 각기 특성이 있어 흥미가 갑니다. 춤과 놀이 속에 민족의 혼과 정서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이해가 빠를 수 있으며, 그 속에 동질성을 찾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이 갑니다. (5-서비스제공자)

본 적은 없지만 보게 된다면 흥미를 가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찾아서 보는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민속춤이나 민속놀이조차 찾아서 보는 편이 아닌데 외국 춤이나 놀이라면 더 관심이 적어요. (2-이웃주민)

5) 언어사용

언어사용은 한국어 유창성, 언어, 관습, 가치관 등으로 나타났다.

(1) 한국어 유창성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에 살려면 한국어가 꼭 유창해야 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바디랭귀지를 하면서 차차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가정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있어 유창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또한 유창하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어가 서투른 사람에 대해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한국어는 한국에 잘 정착하고 적응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유창성은 필수라고 하였는데 특히 자녀의 교육문제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서비스제공자보다는 정책담당자보다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교육이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지원내용으로서 한국어교육이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동화를 강요하는 수단이기보다는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소통증진, 나아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로 이해되어야 한다.

유창하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언어 구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언어를 통해 이루어져 있고, 그 속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의중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언어 구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들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5-서비스제공자)

잘하면 좋겠지만 유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이제는 다민족사회라는 점을 이해하고 우리

말이 서투른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6-서비스제공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한국의 문화, 사회 등 한국사회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어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부분이 힘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정착 및 적응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언어라고 봐요. (12-정책담당자)

언어의 유창성이 필수라고 생각해요. 특히 자녀의 교육 문제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이에요. (8-서비스제공자)

(2) 언어, 관습, 가치강요

결혼이민여성에게 우리나라의 언어, 관습, 가치 등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거나 강요해야한다고 하는 입장이 있었다. 강요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고 부부 서로에 대해 알고 서로 이해해야 하며 강요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강요가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며 강요가 한국문화에 대한 반감을 높이고 나아가 가정파탄에 이르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본인의 필요와 주변의 안내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 강요해야 하는 경우 언어에 대한 강요가 필요하고 관습, 문화에 대한 이해, 요구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서로의 이해를 위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방적인 강요보다 서로에게 맞추어야 한다고 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모습을 보였다.

강요를 통한 습득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봐요. 강요보다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이런 전통문화가 있고 사회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이렇다라는 교육과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가족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하고, 결혼이민여성들이 체험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2-정책담당자)

우리나라의 언어는 강요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 관습이나, 가치까지 강요한다는 것은 강요가 아닌 이해의 차원으로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관습과 문화, 가치를 이해 해달라고 해야지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이웃주민)

6) 개방성 정도

개방성 정도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태도, 한국문화 수용도, 수용의도 등으로 나타났다.

(1)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태도

지역사회성원으로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태도는 수용적인 입장으로 과거에 비해 지역사회성원들이 결혼이민여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있었다는 모든 응답자들의 의견과 한국국민으로서 생활하고 있고 현실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한국인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저출산 고령화를 위한 이민유입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다. 반면 차별적인 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 우리사회의 이들에 대한 편견을 바로 정립하기 힘들 것이며 나약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이민여성 스스로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여성 자신이 지역사회성원임을 자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의견으로 결혼이민여성은 타인이며 타인에 대한 관용적 모습을 보이므로 취업이나 이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이든 정책담당자이든 과거에 비해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현재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졌고 지역사회성원으로 인식하고 있어 보다 나은 문화적 유연성을 나타내고 있다.

몇 년 전에 비해 많이 발전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문화가정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라는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국가지원 및 이주여성 전용센터와 긴급지원센터, 또한 각종 제도적 지원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진 영향으로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인식들이 점차 변하고 있으며, 공익광고나 학교에서의 다문화이해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로부터 인식개선이 많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꾸준히 지속된다면 지역사회 성원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5-서비스제공자)

결혼이민여성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이웃이며 미래 국가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봐요. 이들에 대한 차별과 무시는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역행하는 마이너스요인이며 지역사회 적응지원을 확대하고 자녀교육과 자립역량을 제고하는 시책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함께 참여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적극적인 이민유입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9-정책담당자)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면 잘 따라옵니다. 그러나 스스로 결혼이민자여성이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의 태도를 찾는 것은 어려워요. 다문화 센터나 이민자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지역사회성원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지역주민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통해 지역사회성원으로
로서 이민자여성들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
을 것 같아요. (7-서비스제공자)

이주여성은 아직도 타인이며 한국인은 타인에 대한 관
용적 모습을 보이고 있고 관에서 하는 취업이나 지원은 막
일 수준이며, 지역주민으로서 교육의 기회는 제한이 없으
며 이혼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8-서
비스제공자)

(2) 결혼이민여성의 한국문화 수용태도

결혼이민여성의 우리문화 수용에 대한 태도에 대해 교육이
나 행사참여에 적극적이고 새로운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
한다. 우리문화를 수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해하
고 적응하려는 노력은 매우 적극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수용과
정 중 한국어 노력은 하지만 문화나 생활적응에는 소극적이라
고 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의 개인차를 언급하였는데 전혀 노력
하지 않거나 베트남국가 등 특정국가의 경우 어려움을 갖거나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자기방식을 고수하거나 힘든 것
을 피하는 측면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의 개인의 특성과 출신국에 따라 한국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개입도
고려되어야 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서비스제공자의
경우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태도
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들에게 무조건적 수혜보
다는 의식변화와 동기부여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긍정적인 것 같아요. 교육참여나 행사참여에 적극적이
고 새로운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 같아요. 결
혼이민여성뿐만 아니라 그 가족, 자녀들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많이 개발해야 할 것 같아요. 결혼이민여성을 위
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나고, 국가에서 이들을 위한 다
양한 제도나 정책을 펼쳐 결혼이민여성에게 한국의 생활
이 향상되었으면 해요. (4-이웃주민)

우리의 말을 되도록 많이 하려 노력하는 듯하나 우리
문화와 생활에는 그렇게 빠르게 적응하려 하지 않는 것처
럼 느껴집니다. 그녀들이 우리나라로 시집을 오기 전에
우리 문화의 좋은 면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생활을 제대로
아니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느껴보고 왔으면 합니다.
또한 이 나라에 들어와서도 누군가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기 바라기 보다는 그녀들 또한 알고 싶고 모르는 것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 이웃과 가족과 함께 배우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3-이웃주민)

개인차가 있고, 민족별, 국가별 차이가 있지만 베트남
출신여성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듯합니다. 전혀 노력
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6-서비스제공자)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는 외국인여서 잘 몰
라'하며 자기 방식을 고수하는 측면도 보이며 힘든 것을
피하는 측면도 다소 있습니다. (8-서비스제공자)

7)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에 대한 견해와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의식 및 태도의 변화방향
성으로 나타났다.

(1)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견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견해는 무조건적 수용보다는
다문화사회로의 정책이 지역사회의 지원망 등이 강구될 때 긍
정적 다문화사회로 될 것이라는 생각과 다문화사회로 변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식의 변화가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
하였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사회의 기정 사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문제로 우리의 인식변화와 적응이 필요하다는 입
장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
는 희망적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의 변화가 두렵고
그로인해 파생되는 2세 문제 등에 대한 걱정을 강하게 나타내
고 있다.

현재 다문화사회로 진입된 상황에서 지역주민은 양가적 감
정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문화사회를 우리사회 현실에 맞게 해
결책을 모색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오랫동안 유지되어져 온 단일민족 사상이 뿌리 깊게 잔
재되어져 있어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러나 이미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확산
되어져 있고, 그 자녀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엄청난 증가
세를 보이고 있어 이미 우리 사회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어 가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에 대
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더해지고 다문화가정에 대
한 공동체적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어 지면 자연스럽게 다
문화사회로의 변화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5-서비스제공자)

변화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폐쇄적인
성향이 남아 있는 우리나라 사회에 이러한 다문화사회로
의 변화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2-이웃주민)

(2)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의식 및 태도의 변화방향성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견해는 일단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제도, 정책, 사
회적 지원, 의료적 지원,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 화합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개성있는 존재이고 우리와 같은 존재라
는 존중이 필요하다. 동원식 행사나 사회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

도록 하는 것과 낙인감을 주는 지원, 무분별한 설문조사에 따라 불만을 토로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의 자존감을 살리고 그들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자신들도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자신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겠다. 결혼이민여성의 동기 부여와 임파워먼트향상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져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존재로 성장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적으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요. 보편적으로 일반사람들에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결혼이민여성이 속한 소그룹 즉, 결혼이민여성이 속한 가정과 민첩하게 활동하는 외부자원체계들의 중점으로 인식차이 줄이기를 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이웃주민)

아직 이들 여성에 대한 많은 과제가 남아있죠. 결혼이민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을 위한 정책 및 복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국과 비교해보면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인 것 같아요. 실제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 정책, 사회적 지원, 의료적 지원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배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아이가, 우리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서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만을 위한 서비스보다는 한국인들과의 교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적 시스템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이웃주민)

근거없는 우월의식이나 측은지심은 생략하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하고 보호하는 태도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11-정책담당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하려고 마음먹은 이상 한국 생활의 빠른 정착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수혜의 대상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노력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성공한 아내와 엄마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과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정책담당자)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지역구성원인 이웃주민, 서비스제공자,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질문하기와 비교하기를 활용하였고 주제분석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문화적 민감성을 파악하였다. 문화적 민감성은 문화적 통합정도, 문화적 지식, 기회균등, 문화적 독특성인지, 언어사용,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개방성, 다문

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이웃주민, 서비스제공자와 정책담당자간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유사한 성향을 보였다. 먼저 문화적 민감성에서 대부분 문화적 통합은 폐쇄적인 성향이 있었으며 결혼이민여성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고, 문화적 참여는 소극적이지만 이들을 존중하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고와 실행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우리사회가 결혼이민여성을 차별하고 있다고 일치된 의견을 나타내었다. 개방성에서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 결혼이민여성의 우리문화에 대한 수용은 다소 소극적이며 노력하지 않은 모습도 보고되었다. 앞으로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의사소통능력과 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우리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인식변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핵심적 결과를 토대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문화적 민감성과 관련해서 몇가지 특성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여부에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등을 포함한 문화적 통합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결혼수용에 대해 이웃주민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사회구성원들이 폐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을 허락하지 않거나, 전제조건을 중심으로 허락한다는 미온적 태도를 볼 때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국제결혼을 보편적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사회 대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에서 배우자감에 대한 선호는 유색인종에 대한 편파와 백인우월에 동조를 드러내며 인종차별적 경향을 위협스럽게 보여준 결과(양성은, 2008)와 한국인이 서구문명국가에 대해서는 사대주의와 함께 열등 의식이 깔린 불신을 보이는 반면 후진국에 대해서는 인종주의, 자민족중심주의, 우월의식 등을 과시하는 이중적 편견을 보인다(전수현, 2002)는 지적과 일맥상통한 결과로 현재 한국의 국제결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저소득국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농촌 미혼남성은 국제결혼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국제결혼부부 문제점의 관찰을 통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우려로 증폭되었다는 연구결과(정현숙·양순미, 2009)를 볼 때 국제결혼가족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들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등이 보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결혼이민여성과 함께 할 때 편안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불편하다는 대답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동정심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우월 의식의 상징이며 이들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인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실제로 대중매체에서 결혼이민여성과 가족에 대한 편협하고 극단적인 사례들을 자주 접한 결과 일부 사례가 일반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문화 수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 간 접촉 경험의 성질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결과들(Liebkind, 2000;

Nesdale & Todd, 2000)을 볼 때 이문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빈번한 접촉의 경험이 서로간 인식의 정확성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들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사회통합의 문제, 자녀의 사회화, 우리사회의 인식 등의 현안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미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최효진과 유계숙(2009)의 연구에서도 이민자에 대한 위협지각에서 경평관계에 있는 집단들에 대해 인식전환과 동시에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피력하였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고 통합을 이루어가기 위해 결혼이민여성자신의 노력과 문제해결능력도 필요하지만 우리사회의 준비도와 통합실행능력이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공감하고 있는 증거라 하겠다.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서는 응답자 모두 일치된 의견이 나타났다. 결혼이민여성지원에 대한 불평, 불만이나 차별의식, 억압, 낙인화가 나타났으며 실천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결혼이민여성의 부정적 특성들도 언급되어 긍정적 면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대중매체의 조장과 우리의 근거없는 우월의식을 들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가는데 심리적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우리사회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용과 폭넓은 시각이 전제되고 차별대상이 아닌 다양성을 공감하는 인식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다른 나라 문화지식을 습득하는데는 대부분 적극적으로 소극적이든 참여한 경험과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다른 나라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을 표현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국의 문화를 유지하는데 다수의 지역주민들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볼 때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수준이 문화간 이해와 수용, 그리고 조화로운 융합에 바탕을 둔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주의에 부합되는 수준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양애경 등, 2007)고 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때, 상황과 관계맥락에 따라 유동적 자기인식을 보이는 한국인들의 자기인식의 특성(김의철·박영신, 2006)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후 자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결혼이민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모두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우리의 동화정책이나 낮은 복지서비스를 들었고 또한 저소득국가출신과 외모, 언어 등으로 인한 생활전반의 차별은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GNP 차별주의가 내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난 결과라 보여지며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인식내용이 출신국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과 강하게 연결되었다는 선행연구(최훈석 등, 2008)와 맥

을 같이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생활속에서 지속적으로 다문화를 공유하고 전달하는 생활친화형 다문화체험프로그램 모색이 절실하며 차별해소에 대한 전국민적 의식개선과 홍보 등이 요구되며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차별에 대한 근거와 해결방안이 앞으로 과제로 남는다.

넷째, 문화적 민감성에서 전체적으로 관념과 현실간 일치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응답자들은 현실적으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로 인식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대우와 기대는 이상적인 모범담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인식과 실제간 간격이 존재할 수 있으나 우리사회의 이중적 잣대와 양면성의 단면으로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구성원과 결혼이민여성간 원활한 소통과 성숙한 세계시민의식이 요구된다. 같은 맥락에서 대학생연구에서도 국제결혼을 국제화와 세계화를 이끄는 긍정적 현상으로 보았으나 실제 배우자에 대한 인종간 차별선호로 나타나 앞서 제시한 시각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양성은, 2008).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현실간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사회가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가 혼재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결혼이민여성의 개방성정도에서 지역사회성원으로 결혼이민여성을 수용하고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차별적 입장에서부터 벗어나고 결혼이민여성 자신이 지역사회성원임을 깨닫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역사회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우리사회가 결혼이민여성을 수용하려는 태도와 결혼이민여성도 주체적인 입장에서 우리문화를 포용하려는 의지가 수반될 때 진정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우리사회는 다문화사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문화사회 변화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이 언급되었고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공통으로 나타나 앞으로 다문화사회로 이행해가는데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형성하고 국민의 불안을 잠식시키고, 단일민족의식에서 벗어나는 등의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몇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의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편견, 선입견이 존재해 있고 차별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에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다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있어 결혼이민여성과 가족에 집중된 협소한 차원보다는 그들과 함께 하는 이웃, 사회 등 폭넓은 지역사회구성원 모두의 인식의 전환과 개선의지가 전제된 시각과 정책방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현주소를 확인하였고 앞으로 한국사회가 배타적인 자민족 중심적 사고의 전통에서 벗어나 다문화주의를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방향설정이 필요한 때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서비스제공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들은 다른 국가의 문화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기회의 부족을 언급하거나 참여의사조차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 기회의 부족과 참여의사의 부재는 타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부족을 낳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지역주민은 결혼이민여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경험하는 내용이 그들의 문화적 민감성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한국 문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한국사회도 다른 국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한국 문화와 다른 국가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공연과 전시회 그리고 캠프 등 다른 문화에 대한 대중적 이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문화적 민감성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사회의 실현은 양방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웃주민, 서비스제공자, 정책담당자가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개방성과 결혼이민여성의 우리문화 수용도간 차이가 나타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사회의 다문화역량은 발휘될 수 없다고 하겠다. 분명한 것은 결혼이민성과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상호차이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둘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다문화역량강화향상 프로그램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실천적 노력은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에게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응은 정책관련자에게 또다른 정책의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에서 공적, 사적 영역에서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성을 포함한 모든 대상자간 상호관계성이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식이 확산되었고 미래 국가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결과는 결혼이주자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지역주민'으로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이경자·이의미, 2009)와 일치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지향성이 이민자지원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이민자지원정책의 성패에 국민의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최효진·유계숙, 2009)고 한 결과를 볼 때 결혼이민여성들이 우리사회의 다문화사회형성의 견인차로서 인식되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는 인식을 증진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지원서비스, 정책과 함께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중요역할자로 자리매김되어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

다섯째, 우리사회의 다문화현실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지 않지만 현재와 미래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제공한 결과를 볼 때 그동안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의 정책담론과 비전이 관주도하의 하향식 정책이었다면 민간 및 시민사회와 이주민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어야 함을 보여

주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수반될 때 다문화주의의 정책목표와 성과의 수혜자는 이주민뿐만 아니라 한국인들 자신들이며 다문화주의는 이주민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임을 상기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그동안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온 연구에서 벗어나 이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이웃주민, 서비스제공자, 정책담당자가 인식하는 문화적 민감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몇가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문화적 민감성의 제 단면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질문접근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응답자들의 원인구명과 자연스러운 의견도출의 한계가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은 결혼이민여성과의 접촉과 경험의 정도가 고려되지 않아 일상적인 대면을 하는 대상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대상자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가 면접연구이기는 하나 피면접자들의 특성이 다양화되지 못한 점도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개선하여 결혼이민성과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수준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사례까지를 포괄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천의 모든 차원(개인 실천가, 전문직, 서비스 조직, 제도 차원)에서 활용될 문화적 민감성의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할 과제가 남는다.

결론적으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문화적 민감성은 현시점에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웃주민, 서비스제공자와 정책담당자들은 우리사회가 이러한 특징을 극복해내는 것이 보다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으며 동화를 전제로 한 다문화주의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이웃주민, 서비스제공자, 정책담당자의 문화적 민감성에 대상자들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실제 편견과 고정관념이 내재된 상태에서 결혼이민여성과의 관계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에서 공적, 사적 영역에서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문화에 대한 폭넓은 경험시도와 수용이 전제된 문화적 민감성이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복순·차보현(2006). 농촌지역 코시안 가정주부의 의사소통 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8(3), 109-134.
- 김두섭(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 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29(1), 24-56.
- 김상학(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1호, 169-206.

- 김연희(2007). 문화적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실천. **2006년 다문화 가족센터 추계학술대회**,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책 및 지원 전략, 151-164.
- 김이선 · 김민정 · 한진수(2007).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 보고서.
- 김의철 · 박영신(2006). 한국인의 자기인식에 나타난 토착문화 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 1-36.
-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 · 차별사정위원회(2006). 결혼이민여성 가족 및 혼혈인 · 이주자 사회통합지원방안.
- 민성혜 · 이민영(2009).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관한 탐색적 연구-문화적 인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1)**, 183-206.
- 박수미 · 정기선(200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 **70호**, 5-25.
- 설동훈(2006). 국민 · 민족 · 인종: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체성. 한국사회학회의 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아학회 용역과제 보고서.
- 양성은(2008). 국제결혼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4호**, 37-60.
- 양애경 · 이선주 · 최훈석 · 김선화 · 정혁(2007).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 윤갑정 · 김미정(2008). 다문화시대 유아교사의 문화적 역량 개발 방향 탐색.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4)**, 55-85.
- 윤갑정 · 이병준(2008). 미국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담론. **문화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69-84.
- 이경자 · 이의미(2009). 외국인 이주와 적응과정 개관과 특성. **한국지리지학회 학술대회**, 55-59.
- 이정우(2007). 다양한 인종, 민족 집단에 대한 예비교사의 고경 관념: 사회과 예비교사교육에의 함의. **시민교육연구**, **39(1)**, 153-178.
- 전수현(2002). 필리핀 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의 주변적 지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 · 양순미(2009). 농촌의 혼인관련 인구학적 현황과 농촌 미혼남성의 혼인과 국제결혼관련태도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1)**, 17-29.
- 조영아 · 전우택 · 엄진섭(2004).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예측요인: 3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67-484.
- 최금혜(2005). 한국남성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아시아 여성연구**, **44(1)**, 329-364.
- 최효진 · 유계숙(2009). 이민자와 이민자지원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1-27.
- 최훈석 · 양애경 · 이선주(2008).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 사회수용성: 안산과 영암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39-69.
- 한성열 · 이종한 · 금명자 · 채정민 · 이영이(2007).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대인관계와 문화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 33-54.
- 행정안전부(2009).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세계일보(2007). 4월 24일자.
-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99). *Cultural competence compendium*, Chicago,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0). Guidelines for providers of psychological services to ethnic, linguistic, and culturally diverse populations, retrieved from www.apa.org/pi/guide.html.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 5-68.
- Bogardus, E. S. (1928). Measuring social distance.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9**, 299-308.
- Bogardus, E. S. (1933). A social distance scale.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17**, 265-271.
- Boyle, D. & Springer, A. (2001). Toward a cultural competence measure for social work with specific populations, *Journal of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in Social Work*, **9(3-4)**, 53-71.
- Brewer, M. B. (2003). *Intergroup relations*. 2nd ed. Open University Press.
- California Endowment (2003). *Principles and recommended standards for cultural competence education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Thousands Oaks, CA.
- Campinha-Bacote, J.(2002). *Cultural competency in health-care delivery: Have I asked myself the right question?* Retrived November 26, 2006 from <http://www.transculturalcare.net>.
- Castles, S. & Miller, M. J. (2003). *The age of migration*. 3rd ed. N.Y.: Guilford Press.
- Clark, J. A. & Legge J. S. Jr. (1997). Economics, racism, and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n the New Germany.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0**, 901-917.
- Crocker, J., Major, B. & Steele, C. (1998). Social Psychology. Oxford: Gillbert, S. T. Fiske, and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pp. 504-553. N.Y. : McGraw-Hill.
- Cross, T., Bazron, B., Dennis, K. & Isaacs, M. (1989). *Towards a culturally competent system of care*. Washington, Georgetown University Child Development Center.

- Cushner, K. (1986). *The inventory of cross-cultural sensitivity*. Kent State University Press.
- Gudykunst, W. B. (1998). *Bridging differences: Effective intergroup communication*.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Hainmueller J. & Hiscox M. J. (2007). Educated preferences: Explaining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61, 399-442.
- Kunda, Z. (1999). *Social cognition: Making sense of people*. Cambridge, MA: MIT Press.
- Lewin-Epstein N. & Levanon, A. (2005). National identity and xenophobia in an ethnically divided society. *International Behavior*, 12, 119-128.
- Liedbkind, K. (2000). Acculturation. in R. Brown and S. Gaertner, eds. Blackwell.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 386-404. Oxford: Blackwell.
- Loo, R. (1999). A structured exercise for stimulation cross-cultural sensitivity.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4, 321-324.
- Lum, D. (2005). *Cultural competence, practice stages, and client systems: A case study approach*. Belmont, CA: Brooks/Cole.
- Lum, D. (2007). *Culturally competent practic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diverse groups and justice issues* (3rd ed). Belmont, CA: Brooks/Cole.
- Luquis, R. R., & Pérez, M. A. (2006). Cultural competency among school health educators. *Journal of Cultural Diversity*, 13(4), 217-222.
- Manoleas, P. (1994). An outcome approach to assessing the cultural competence of MSW stud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al Work*, 3, 43-57.
- McPhatter, A. (1997). Cultural competence in child welfare: What is it? How do we achieve it? What happens without it?. *Child Welfare*, 76(1), 255-278.
- Medrano, J. D. (2005). Nation, citizenship, and immigration in contemporary Spain. *International Journal on Multicultural Societies*, 7, 133-156.
- Medrano, J. D. & Koenig, M. (2005). Nationalism, citizenship, and immigration in social scienc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n Multicultural Societies*, 7, 82-89.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National Committee on Racial and Ethnic Diversity (2001). NASW standards for cultural competence in social work practice retrieved from www.naswdc.org.
- Nesdale, D. & Todd, P. (2000). Effect of contact on intercultural acceptance: A field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 341-360.
- Roberts. L. W. & Clifton, R. A. (1982). Exploring the ideology of Canadian multiculturalism. *Canadian Policy*. 8(1), 88-94.
- Ruefle, W., Ross, W. H. & Mandell, D. (1992). Attitudes toward southeast Asian immigrants in a Wisconsin communi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6, 877-898.
- Sue, S. (2006). Cultural competency: From philosophy to research and practic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4(2), 237-245.
- Sue, S. & Sue, D. (2003).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Sue, S. (1998).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Multicultural aspects of counseling series 11. 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Ting-Toomey, S. (1994). Managing intercultural conflict effectively. in L. Samovar and R. Porter. ed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Reader*. 7th ed. Belmont, CA: Wadsworth.

접수일 : 2009년 07월 15일
 심사일 : 2009년 07월 29일
 심사완료일 : 2010년 02월 12일